

# 광주지역 모의수능 만점비율 1% 이하

지난 6월 실시된 2019학년도 모의수능 광주지역 실체점 결과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2일 발표한 6월 모의수능 실체점 결과 국·영·수 모두 만점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수학(기형·나형)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으로 변별력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까지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국어 만점비율은 0.25%, 수학 기형의 만점비율은 0.08%, 수학 나형의 만점비율은 0.08%로 지난해 수능에 비해 모두 줄어들었다.

1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91점, 수학 기형 85점, 수학 나형 88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낮게 형성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0점, 수학 기형 145점, 수학 나형 141점으로 각각 134점, 130점, 135점이었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의 학생 수는 2만 1762명(4.19%)으로 지난해 수능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 5만 2983명(10.03%)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배치 기준 점수는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 600점 만점(3과목 기준)으로 발표한다. 이월 경우 대학에서 적용하는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어 과목의 등급에 따라 수험생들의 유희리가 바뀔 수 있어 대학별 점수에 의한 배치 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대의 경우 등급간 점수 차이가 지난해 30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어 영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서울대는 국어, 수학, 탐구영역 표준점수 600점 기준으로 문과는 407점 이상, 이과는 400점 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고대는 600점 기준으로 문과는 402점 내외, 이과는 392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환산점수를 통해 광주지역 주요 대학과 학과의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면, 광주교육대는 대학별 점수 838점(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백분위 91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전남대식) 1000점 만점은 경영학부·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영어영문학과·경

## 실체점 결과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

### 광주시교육청, 내일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영학부는 912~929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880점 내외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959점·치

의학과 952점·수의예과 932점·수학교육과·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는 900~873점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6월 모의평가 실체점 결과를 분석해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

조인호 기자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용품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6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안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전교조, 6일 연가투쟁 예고

### "대통령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법 밝혀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6일 대규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임을 열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의 노조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이 오는 6일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전교조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정의행위다. 지난해

12월 연가투쟁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나서는 것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0일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뉴스스

## 순천경찰, 차량 절도범 검거 도운 시민 2명에 감사장

순천경찰서는 2일 훔친 차량을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절도범의 검거를 도운 시민 A(60)씨와 B(28)씨에게 감사장과 보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께 순천시의 한 영화관 지하주

차장에서 훔친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최모(21)씨의 진로를 가로막아 검거를 도왔다.

A씨는 순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도움 요청을 받은 직후 자신의 승용차로 최씨가 몰던 SUV 앞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구입한 자신의 승용차가 파손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을 도왔으며, B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최씨를 쫓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서 구급차·승합차 충돌...5명 부상

2일 오전 10시5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최모(38) 구급대원이 몰던 구급차 옆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구급대원 3명과 이송환자 김모(91·여)씨, 응급구조사 실습생 등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와 승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다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전북에서 농업용 전선 싹둑 50대 구속

진도경찰서는 2일 전북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남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에 진도군 염산면 농로에 설치된 농업용 전선을 가져가는 등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도 일대에서 23회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중성선)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중성선이 보조 전력선으로 이용돼 한 방향만 건드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야간시간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농가와 과수원에 사용되는 전선을 주로 훔쳐 고물상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와 고물상 주인 2명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낮 시간대 빈집 턴 6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낮 시간대 빈집을 턴 혐의(절도)로 이모(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55분께 광주 북구 모 시장 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금목걸이 3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출근시간 이후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물색,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절도 혐의로 3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출소후 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 "노인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 빈집을 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방기간 재범한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고의로 부딪힌 뒤 휴대전화 수리비 청구 4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행인과 고의로 부딪혀 휴대전화 수리비를 물어 낸 혐의(공갈)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광전동 버스터미널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A(19)씨와 고의로 부딪힌 뒤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수리비 25만원을 물어내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서울·부산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총 204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사회 초년생이나 장애인, 군인 등을 노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 여관방서 3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제주 시내 한 여관방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 함께 모텔로 들어간 50대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선인 고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새벽부터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사이 제주시 건입동 소재 여관방서 피해자 김모(3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입실 시간이 지나도록 김씨가 퇴실하지 않자 방문을 열고 들어간 모텔 업주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목 주변이 단단한 끈으로 감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관 폐쇄회로(CC)TV 등에 고씨와 김씨가 함께 입실하는 장면을 토대로 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2일 오전 2시45분께 자신의 숙소에서 머물던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학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